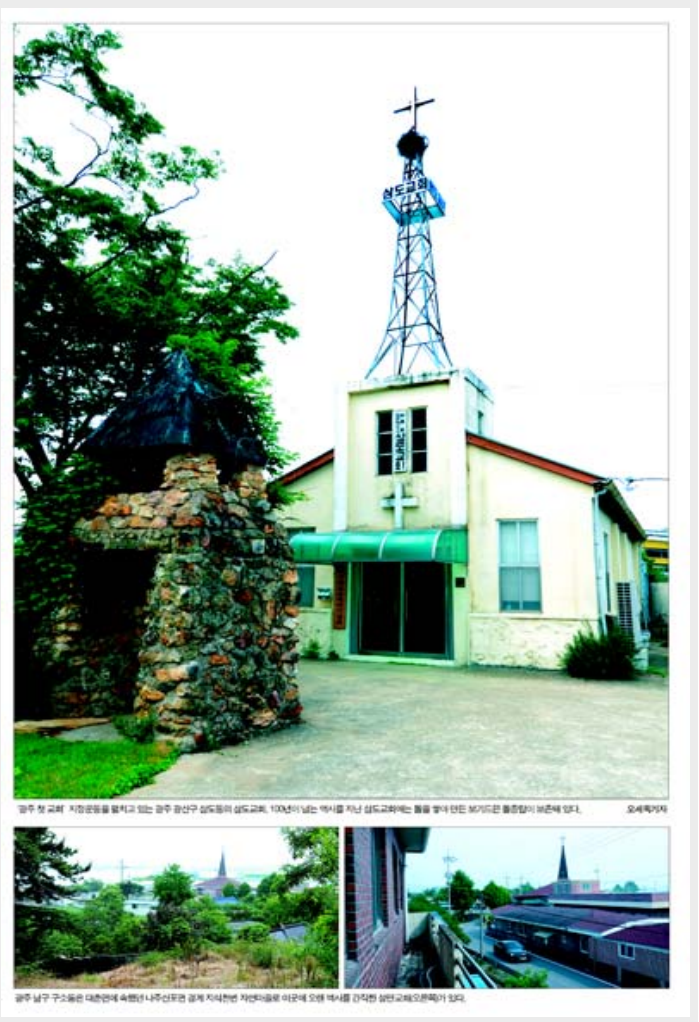
최초의 광주 예배당

김정호의 광주 역사산책 / 입력시간 : 2014. 06.12. 00:00



美 선교사 양림동 자리잡기 전 4곳서 집회활동 광주 첫교회 지정운동을 펼치는 삼도교회는 신광동네에 있다

목사 박대주씨는 '남장로교회사기'에 잉계예배당이 바다등예배당에 앞서 예배를 본 흔적은 있으나 터를 찾을 수 없고 이 곳을 이어받았다는 송정제일교회가 설립시기를 1901년 4월1일로 정하고 있어 삼도교회가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군이 광주시와 분리되었던 시절, 최초의 기독교 예배당은 양림교회로 여겨왔다. 물론 형식을 갖춘 교회는 1906년에 지은 북문안교회였지만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본곳은 1904년 12월25일 양림동 배유지선교사의 집이였기 때문이다. 양림동에서는 다시 1925년 오웬기념관에서 예배를 보다가 이듬해 60평 자리 교당을 지어 교회를 갖춘 탓으로 북문안교회 이어 1919년 남문 밖에서 시작한 금정교회(뒷날 제일교회로 개명)와 서로 첫 교회시비가 없지 않았다.

광산군이 광주시에 흡수된 뒤에는 첫 교회 정통성에 대한 주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기독교사는 호남신학대학 총장을 거쳐 지금은 계림교회 목사로 사역 중인 차종순씨가 주로 많은 글을 발표해 왔다. 그가 쓴 '양림교회사' I권(2003년 간행)의 서두에 미국 남장로선교회의 전남지방 포교활동이 정리되어 있다. 물론 그는 이책을 집필하기에 앞서 호남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시절 '광주지역최초의 교회에 관한연구'를 이 학교에서 간행하던 '신학이해' 제20집에 발표한바 있다. 그래서 필자의 글은 차교수의 글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차교수는 1928년에 간행한 차재명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와 1896년부터 전남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의 편지나 보고서를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된다.

천주교는 예산사람 홍유한(1726-85)을 첫 신자(광주대교구50년사 53쪽)로 기록하고 있다. 광주교당은 1929년에 시작되었지만 1801년 홍재영 일가가 광주에 와서 살다가 1839년 기해교난 때 순교했으므로 이미 이 때 광주에도 기독교신자가 있었던 셈이다.

신교의 국내 선교는 1884년 미국북장로회 목사 언더우드가 서울에 자리잡고 선교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

다. 이듬해 감리교 아펜젤러목사가 들어와 서울정동교회를 세웠다.

전라도와 제주도선교는 미국남장로회가 맡았으나 북장로회나 감리교보다 7~8년 늦은 1892년 1진 7명이 서울에 들어온 뒤 시작되었다. 1진들은 주로 전주와 군산에 자리잡았다. 광주에 자리잡은 배유지(1868~1925. 유진.벨)선교사 일행 4명은 2진으로 1893년 11월에 한국에 왔다. 3년 뒤인 1896년 2월 배유지와 레이놀즈는 목포에 도착해 땅 2천500평을 샀다. 이해 11월 3일 군산에서 열린 연례회에서 전남의 선교부를 나주에 두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치고 배유지등 7명의 선교사들은 군산에서 목포로 건너와 목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 나주를 거쳐 광주에 처음 들어왔다. 이들은 당시 전라도 관찰사 윤웅열(1840~1911)의 접대를 받았다. 윤웅열의 아들인 윤치호(尹致昊 . 1865~1945 . 미국망명중 기독교신봉)의 권유를 받고 미국남장로선교사들이 한국선교에 나선 인연때문이었다. 배유지목사는 이 여행후 96년 12월 나주선교부의 책임자로 결정되었으므로 97년 3월 변창연 통역 겸 조사와 함께 나주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 집을 샀으나 지역반대가 심해 변창연 조사부부만을 나주에 머물러 집을 짓도록 부탁했다. 이해 10월 군산에서 열린 연례대회는 나주선교부를 포기하고 목포선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목포는 나주에 선교부를 두기로한 1897년10월1일 개항하게 되어 배유지는 11월 27일 목포에 또 땅을 샀다. 98년 3월 목포교회 건축이 착공되어 5월에 준공하면서 이달 15일 첫예배를 보았다. 11월10일 오웬 (1867~1909 : 吳元)이 도착해 의료선교를 담당했다.

1899년 목포에서 지원근, 마서규 등 7명이 세례를 받았다. 1900년에는 목포총순을 거쳐 양조장을 경영하던 김윤수 (1860~1919)도 세례를 받았다. 그는 1904년 광주양림동의 선교사집을 짓는 책임을 맡았고 광주에서 둘째부인을 얻어 생활하는 동안 최흥종목사와 함께 초창기 광주교회의 장로로 활동했다.

1901년 4월 13일 배유지 선교사의 부인이 두 아이를 두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배유지선교사는 이해 5월 미국에 돌아가 둘째부인을 맞은 뒤 1902년 12월 귀국했다.

배유지선교사가 목포를 비운다음 목포는 오웬과 레이놀즈가 맡았다. 이 기간 한국인 목포세례자들의 시골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다. 1903년 1월 군산에서 한국세례자들을 선교에 활용하기위한 지도자반 교육이 있었다. 목포에 파견되어 있던 스트레퍼양이 보고한 1903년 10월의 보고서에는 목포 이외의 8개소에 예배모임이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오늘날 광주광역시역이 된 네곳에 교회활동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배유지가 광주 양림동에 자리잡기 2년전이다.

'오늘날의 광산구 우산동 잉계동네에 큰 교회가 지어졌고 2백명을 수용할수 있다. 이곳에서 3마일거리(4.8Km)의 도덤(do-dum-e)에서도 집을 사서 기도처와 주간학교로 쓴다. 주일날 평균50명가량 모인다.' 이곳은 1990년 대해출판 '광주직할시지도'에 도담으로 표기된 지명이 신흥동 용보촌과 장암사이 비행장 곁에 있던 동네로 보인다. 세번째 동네는 당시는 나주군 삼가면에 속했다가 1949년 광산군에 편입된 삼도면 해등(바다등)이 있다. 물론 이 보고 중의 8곳 중 광주근교 기도처는 장성군 진원면의 역촌마을인 영신(永申)과 동화면 배치. 삼서면 보생리 하나말이 있다. 스트레퍼양의 보고서에 보면 도담교회는 목포교회의 세례자 지원근(池元根)이 맡고 있었으며 1903년 2월 가족이 이사해 살고 있었다. 지원근은 1904년 장성의

하나말교회가 이곳 관리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직후 지원근은 감옥에 두달 간 갇힌 사건이 프레스톤선교사의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1904년 4월 10일이 목포에 있던 프레스톤과 오웬선교사는 이 일대 교역지를 둘러보고 광주선교부의 설치를 요구했던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광주에서는 또 하나의 기도처가 생겼음이 '조선예수교장포회 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광주군 송정리교회는 김서방집에서 회집하다가 우산리 예배당을 신축하고 그후 송정리로 이전했으며 조상학조사 등이 시무했다'는 기록이 있다. 송정리교회는 이 기록을 토대로 송정제일교회는 1901년 4월 1일을 교회창립일로 정하고 있다. 1928년에 간행한 선교회 서기에는 삼도교회의 성립시기를 1899년으로 기록한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삼도리 교회는 정원삼, 이문호, 윤상삼 등이 광주 우산리교회에 다니다가 이문오(李文五)가 자신의 주막업을 파업하고 그 집을 예배처로 사용했다. 목포의 세례교인 마서규가 주로 인도했다. 그후 장성 보생리 하라리 동네와 광주군 구소리교회가 분립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차종순교수는 배유지 선교사의 첫 광주방문은 1896년 11월 동료 선교사들 6명과 함께 온뒤 1897년 5월 나주 선교부 개설을 위해 전주에서 나주까지 말을 타고 여행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때 우산동이나 삼도일대 선교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 우산동 잉계교회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삼도교회는 1899년 11월 오웬선교사와 스트래퍼양이 나주와 광주근교를 방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때가 삼도교회의 설립과 관계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1904년의 배유지보고서에는 1899년 우산동 잉계부락 **선응칠**의 집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목이 있어서 송정리 제일교회가 김서방집에서 회집을 시작했다는 교회사서기 기록과 좀 다르다. 김일서방의 집은 잉계곁의 덕산이었던것 같다.

1904년의 오웬선교사의 보고를 보면 당시 송정리 도담의 문답신도가 62명이고 바다등문답신도는 41명이며 구소의 문답신도는 14명이었다. 구소동은 남구 대촌면에 속했던 나주산포면 경계 지석천변동네로 동쪽의 남평 광리역촌과 관련있는 동네이다. 이때의 기록대로라면 이 구소동의 교회도 양림교회보다는 앞선다. 이 곳에는 75년에 새로지은 성만교회가 있다. 옛 교회자리는 신장동과 구소동의 경계길 도상길10 최영춘(236-1번지)의 윗밭이라 한다. 삼도동 바다등교회는 삼도동 782, 783, 784 번지에 있었다. 이곳은 평동로 서쪽끝 등촌동네 정소연씨집 건너밭이다. 오늘날 광주첫교회 지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삼도교회는 이곳에서 4Km거리의 신광동네에 있다. 이 교회 목사 박대주씨는 우산동 잉계교회는 비록 선교사들의 보고나 '남장로교회사기'에 잉계예배당이 삼도동 바다등예배당에 앞서 예배를 본 흔적은 있으나 잉계예배터를 찾을 수 없고 이곳 예배를 이어받았다는 송정제일교회가 설립시기를 1901년 4월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삼도교회가 광주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상 가장 앞섰다는 우산동예배자리는 어디었을까. 오늘날의 우산동은 '여지도서' (1759년)에 독산(禿山)면으로 나오고 189집 909명이 살고 있었다. 30여년 뒤의 기록인 '호구 총수'에 보면 독산면에는 동촌, 서촌, 내촌, 월촌의 네동네 이름이 보인다. 1910년 이곳은 우산면으로 이름이 바뀌어 206집 973명이 살고있었다. 이때 이면에는 동작(東作) 서작(西作) 향약(香約) 당사(堂沙) 신기(新基)의 다섯동네가 있었다. 이 다섯동네는 면 이름을 따 1914년 우산리(牛山里)로 합해지고 오늘날의 우산동이 되었다.

우산은 2백여년전 민둥산이란 뜻의 독산이라 불렀으나 독산을 송아지독자로 보고 쇠봉산이라 부르다가 '쇠뫼' 또는 '덕산'이라고도 불렀으며 풍수지리로 알을 품은 암탉 형국이라 하여 '잉계'라고도 불렀다. 이 쇠봉산은 무진대로와 임방울대로가 만나는 동산으로 동쪽 들판쪽 기슭 동네를 동작(東作)이라하고 쇠봉산 서쪽기슭 동네를 서작이라했다. 영산강변둑이 쌓이기 전에는 동작동네 앞 들까지 물이 드나들었던지 배가 드나들었다는 '배나드리'라는 땅이름이 있다. 갯가에 있던 샘이름은 '개골샘'(狗井.갯샘)이라 불렀다.

향약(香約)동네는 임란 때 광주8장사 중의 한사람인 김극추(金克秋 1552~1610) 영천군수를 낸 동네로 향약(鄕約)이 시행된 전통을 이은 동네 이름이다. 당사(堂沙)동네는 풍수지리상 단사(丹蛇)가 변한 서당골이다. 동작이 우산면 으뜸마을로 김씨들이 살았으므로 김일서방예배집은 이 곳에 있었던 듯하고 선응칠(宣應七)의 집은 선씨들이 많이 산 서작동네에 있었던 듯하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의 중앙교회 주변의 김정자느티나무 당산거리에 첫예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4월 17일자 ㊳학강갱생사업편의 끝쪽의 '김신석의 후손 김무성'은 '전남방직 김형남의 후손'의 잘못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사진/ '광주 첫 교회' 지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광산구 삼도동의 삼도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삼도교회에는 돌을 쌓아 만든 보기드믄 돌종탑이 보존돼 있다.오세옥기자

광주 남구 구소동은 대촌면에 속했던 나주산포면 경계 지석천변 자연마을로 이곳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만교회(작은 사진)가 있다.

무등일보 zmd@chol.com